

2022년 1월 7일 금요일 강원도민일보

철원 오덕리·화지리 배수시설 정비사업 2025년 준공

배수장 설치 등 125억원 투입

올해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와 철원읍 화지리 일대에 125억원이 투입돼 104ha 농경지의 배수시설이 정비된다.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봉진)는 올해 철원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확보, 배수시설 정비에 나선다.

하천점용 등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곳과 용배수로 12개, 매립지 15.4ha를 설치하며 2025년 준공예정이다.

농경지의 배수시설이 정비되면 집중호우시 오덕리와 화지리 일대 농경지의 배수기능이 향상돼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재용